

'연 10%' 청년희망적금 가입 폭발...은행 앱 접속 지연

5부제 방식...25일까지 광주 등 11개 은행 점포·비대면 병행 광주은행, 청년 신규 적금 6만5184건...전년보다 42.3% 증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무리하게 돈을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광주·전남 청년들의 부채 상황이 심화됐다.

정부가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 21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금리를 찾는 청년들의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10% 안팎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날 출시됐다.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이번 주는 '5부제' 신청을 진행했지만 첫날부터 일부 은행 앱에서 접속 지연이 일어났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이행할 경우 이행기간 최장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이 적금은 정부가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10% 안팎 금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려지면서, 가입 자격을 조희하는 '미리보기' 단계에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8일 오후까지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150만건을 훌쩍 넘어 200만 건(중복 포함)에 육박했다.

예를 들어 은행 제공 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월 50만원씩 부는다면, 정부 지원 '저축장려금' 36만원과 은행 이자 62만5000원을 더하면 2년이 지난 뒤 만기 수령하는 금액은 1298만5000원이 된다. 이자소득세는 '0원'으로, 일반 과세 상품이라면 9.31% 금리 효과를 보는 것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2.21(월) 출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조건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납입액 매월 5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납입(2년 만기)

은행이자 62.5만원(연5%기준) + 이자소득 비과세 = **일반적금금리** 최대 연 10.14~10.49% 효과(만기세)

지원내용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가입신청일 출시 첫 주 5부제 적용

21일(월)	22일	23일	24일	25일
출생연도	91-96-01 ~ 97-02-31	88-93-03 ~ 98-03-31	89-94-01 ~ 99-04-30	90-95-01 ~ 99-05-31

자료/금융위원회

한다고 가정하면 38만명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일찍 접수가 마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첫날부터 청년들이 앞다투어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

적금 가입은 광주은행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전북, 제주은행 등 11곳에서 할 수 있다. 점포 가입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이날부터 25일까지 닷새에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첫째 날에는 1991·1996·2001년생만, 둘째 날인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들이 고금리 적금에 눈을 돌리는 데는 코로나19로 촉발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청년들은 은행 적금보다는 대출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신규 적금 건수는 6만5184건으로, 전년보다 42.3%(1만9369건) 증가했다.

이는 광주은행 전체 개인고객 신규 적금 증가율 48.4%(22만1992건→32만9444건) 보다 낮은 수치다.

전체 신규 적금 건수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1.9%(12만8250건 중 2만8078건)→2020년 20.6%(22만1992건 중 4만5815건)

→2021년 19.8%(32만9444건 중 6만5184건) 등으로 줄고 있다.

반면 청년들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신규 가계대출은 평균보다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청년들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은 554건으로, 전년보다 123.4%(306건)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67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48건, 지난해 554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의 지난해 평균 마이너스 통장 증가율은 109.1%(27577건→57647건)로, 청년 증가율을 밀돌았다.

이율러 개미 주식투자자와 코인 열풍이 맞물려 청년층 신규 가계대출 증가율(83.9%)은 전 연령대 평균(39.1%)을 2배 이상 앞질렀다.

광주은행에서의 청년층 가계대출은 2019년 7310건, 2020년 1만4380건, 2021년 2만644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신규 가계대출 건수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15.7%(2019년)→17.7%(2020년)→23.5%(2021년) 등으로 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급 매트서 꿀잠 주무세요”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8층 생활전문관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임시매장에서 고급 매트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 3월까지 운영되는 이 매장에서는 구매 금액대별로 다양한 사은품을 준다. <롯데쇼핑 제공>

무역협회, 전남도와 유망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와 함께 '2022년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망 수출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장품, 에너지산업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전남지역 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

하로, 본사나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다. 단 농축수산물 제조·유통기업은 제외다.

무역협회는 지역기업 중 3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부스임차비, 장차비, 운송료의 70% 이내(최대 100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jexport.or.kr)이나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ita

net)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성은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외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농협, 최우수 농·축협 3년 연속 전국 최다 배출

광양·광주축산농협 등 6곳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3년 연속 종합업적 우수사 무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다.

최우수 농·축협에는 광양농협, 서영양농협, 영암 군서농협, 장흥 안양농협, 광주축산농협, 영암 축산농협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농협은 2021년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20개 그룹 가운데 전남 6개 농·축협이 1위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전남농협은 3년 연속 최다 최우수 농·축협 배출을 기록하게 됐다.

종합업적평가는 전국 1117개 조합을 20개 그룹을 나눠 경제, 신용, 교육지원 부문 등 농·축협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평가한다.

그룹별 1~4위 우수 농·축협에는 상패와 우수기, 임직원 표창, 상금 등이 주어진다.

최우수 농·축협은 이번엔 상금 300만원과 2000만원 상당 업무용 차량 1대, 직원 특별승진을 받게 됐다.

우수 농·축협에는 고흥 흥양농협, 영암 신복농협, 영암 금정농협, 해남 북평농협, 담양 봉산농협, 장흥 용산농협, 장흥 정남진장흥농협, 화순축산농협 8개 조합이 포함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지난해 해외 매출 2000억원 돌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한전KPS가 지난해 해외사업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전KPS는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O&M(운전·유지보수) 사업 역량을 키워왔다.

지난해 해외사업 매출액(연결 기준)은 2094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한전KPS의 해외사업은 1982년 이라크 BSPS 화력 계획예망정비공사로 시작한다.

1998년 인도 GMR 디젤발전소 O&M 사업을 수주하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고, 2012년에는 오르단에서 창사 이래 단위 해외공사 최대 규모인 IPP3 600MW 디젤발전소 O&M 사업(1조1000억원 규모)을 수주했다. 2014년에는 인

도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바브나가르 O&M사업을 따냈다.

이로써 한전KPS의 해외 매출은 2009년 632억원, 2014년 1076억원, 2020년 1595억원 등으로 성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3.80 (-0.72)
↑ 코스닥	884.25 (+2.54)
↑ 금리(국고채 3년)	2.363 (+0.041)
↓ 환율(USD)	1192.10 (-3.80)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p> <p>●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